



#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

#서울 성동구 #시설공사비 지원

## 마을과 함께하는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2001년 4월, 성동구 행당동에서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7년의 시간동안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에서 마을의 이웃들은 좋은 책과 만나고, 책 속의 문화를 찾아 누리며, 함께 키우는 아이를 위해 품앗이를 하고, 아이와 함께 ‘자라나는’ 어른을 고민해왔습니다.

## 이웃이 될 수 있는 마을의 큰 집

2016년 1월,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가 새로 자리 잡은 금호, 옥수동은 긴 시간의 재개발 끝에 기존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새 이웃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서로가 낯선 이들이 경계를 풀고 마음을 열어 이웃이 될 수 있는 마을의 큰 집이 되고자 합니다.

## 아이들이 크고 엄마가 성장하는 큰 집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는 아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가 잘 자라야 하는 것처럼 엄마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믿는 곳입니다.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는 그런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책임는엄마 책임는아이 의 2017년은 어떠했나 요?



마을활동가들이 공사 전후의 준비와 정리 과정에 함께 했습니다. 긴급지원119를 통해 마을활동가들을 위한 모임방을 만들기 로 결정한 후 마을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임방의 공사 방향 을 정하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작지만 아늑한 모임공간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옥상 창고이기도 하고 그 공간 자체가 크지 않아서 공사를 완료 한 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았습니 다. 그런데 밝은 색깔 의 벽지와 따뜻한 분위기의 등기구가 더해지자 칙칙한 회색의 창고 는 작지만 아늑한 마을활동가들의 모임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서관 내의 소모임들이 서로 탐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단열벽지로 보온을 더하고 온돌 판넬을 설치하여 겨울에도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감이 컸습니 다. 아이들이 밤새 만화를 읽어도 좋겠다, 엄마들은 종일 수다를 떨고 싶다, 우리 동아리가 모임하고 싶다, 우리 동네 상담소를 열면 좋겠다, 나는 타로를 할 수 있다... 하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간을 두고 재미난 상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 과정을 지켜보던 일반 이용자들은 우리 도서관이 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공사 과정을 참 고 지켜보면서 새로운 공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도서관은 책을 놓고 대출반납의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건강한 마을문화와 대안교육을 실험하고 고 민하는 곳이고, 그런 고민을 하는 마을활동가들이 있다는 것과 그 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관심 가 지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간이 있으니 마을 활동가들도 여유로 워짐을 느낍니다. 긴급지원119사업 이전에는 안정적으로 회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활동가들은 온라인과 문자를 중심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기 보다는 각자 준비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여 전체 의견을 통합하기 어려웠습니 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어려웠고요. 마을활동가들이 활동을 준비하고 회

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활동가들 사이에 교류와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풀어내지 못한 교육의 대안 만들기, 마을의 취약계층 어린이와 재미난 만남, 마을의 다른 자원과의 연대, 새로운 마을문화기획자들과 연대하여 만들어 낼 새로운 상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마을이 낯선 이들이 모여 나의 일상을 타인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수솜씨를 나누어 마을장터로 확장을 꿈꾸고, 로컬푸드와 사회적 경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 이웃과 새로운 마을문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을문화기획자들은 마을의 축제를 기획, 실행하여 건강한 마을문화를 만드는 주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2018년에도 함께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아리 빛 벽과 정돈된 선반을 볼 때마다 여름에 흘린 땀이 생각납니다. 공사를 마치고 공간을 구성할 때, 마을활동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요. 가만있어도 땀이 나는 날에도 두 말 없이 달려와 주셨습니다. 지하 1층에서 3층의 공간까지 3개 층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17년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함께 옮겼습니다. 우리 마을활동가들이 없었다면 이 일을 진행하는 실무자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2018년에도 그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랜 시간동안 신념을 가지고 열정과 열의로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해 오신 활동가 선생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